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는 외상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심리적 후유증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대표적인 진단이다(안현의, 2007). Allen(2005)에 따르면 외상의 유형은 일회적 외상(single-blow trauma)과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natural trauma)과 사람에 의한 외상(man-made trauma)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간 외상은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어난 외상사건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동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 포로경험, 난민경험,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이 있다. 외상유형을 대인 내 외상과 대인 외 외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Herman(1992)이 외상의 유형에 따라 더 복잡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반복적, 대인적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증상들을 단순 PTSD 증상과 구별되어 설명할 수 있는 복합 PTSD의 진단개념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외상을 일으킨 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는 자연에 의한 외상이거나 우연에 의한 외상 사건일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렵고, 외상 경험으로 정신과적 도움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외상을 겪었다고 한다(Allen, 2005). 사건과 관련된 표면적인 불안 증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단순 PTSD와 달리 사람에 의한 반복적 외상을 겪은 경우, 심층적인 성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정서조절의 어려움, 자기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손상,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성, 신체화, 우울, 해리증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Cole과 Putnam(1992)은 외상사건이 개인의 자기조절능

력, 자기개념, 그리고 대인관계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이 성인기 대인간 외상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Finzi, Har-Even, & Weizman, 2003).

이런 점에서 Herman(1992)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를 대인간 외상의 대표적 유형으로 들었다. 아동 청소년기 학대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학대 등을 가리킨다. 아동기 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대인간 외상이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 우울, 섭식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낮은 자존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ndrews, 1995; Briere & Runtz, 1988; 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Cloitre, Miranda, Stovall-McClough, & Han, 200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가 발표한 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570건으로, 2001년 4,133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재신고 접수 건수는 930명으로, 2001년의 20명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해 장기간 반복되는 학대피해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는 방임이 39.8%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9.7%, 신체학대 23.8%, 성학대 5.5%, 유기 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대인간 외상사건 발생과 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대인간 외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외상 후유증에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Tjaden & Thonnes, 1998)들을 바탕으로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임상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아동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학대 경험이 심리적 자기조절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선행연구(Ford, Stockton, Kaltman, & Green, 2006)를 통해 알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의 정도와 그 장기적인 영향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담 장면에서도 대인간 외상 사건을 경험한 여대생 내담자를 대인간 외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단을 내리며,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기인식의 변화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간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자기인식의 변화이다. 대인 외상 피해자는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는 자기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가 수치심이다. Lewis(1971)는 수치심을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특정상황에서 유발되는 하나의 정서반응’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기와

타인 간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수치심은 누구나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서이지만,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종료되면 곧 사라진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경험하는 수치심을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이라고 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반면, 수치심이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아 성격특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김민경, 2008). 이를 ‘특질 수치심’이라 하는데, 특질 수치심은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수치스러운 감정이다. 이후 Cook(2001)은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아정체감으로 내면화되어 열등감, 부적절감과 부족감을 깊이 느끼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수치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지배적인 감정으로 경험되어지는 정서이다(Chan et al., 2005).

외상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논의되어 왔는데(Courtois, 1992, Chan et al., 2005 재인용),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인간 외상은 성인기의 수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Webb, Heisler, Call, Chickering과 Colburn(2007)은 아동기 심리적 학대가 우울, 수치심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했고, Claesson과 Sohlberg(2002)는 성장기에 어머니의 비난과 무관심을 경험한 성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많이 나타냈고, 비난보다 무관심이 수치심 정서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황은수와 성

영혜(2006)가 외상의 유형에 따라 수치심과 다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정서적 학대만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피해자들이 보이는 주요 역기능적 정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에 내면화되어 각종 외상 후 증후군들을 일으키는 원인 정서로 알려져 있다. Coffey, Leitenberg, Henning, Turner, & Bennett(1996)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상사건의 심각도와 정신병리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Chan 등(2005)은 외상의 유형에 상관없이, 외상사건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일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대인간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수치심을 많이 느낄수록 재희생(revictimization), 대인관계문제, 우울, 가족갈등, 분노, 그리고 PTSD 증상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고 한다(Andrews, 1995; 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Gilbert, Allan, & Goss, 1996; Harper, & Arias, 2004; Kessler, & Bieschke, 1999; Kim, Talbot, & Cicchetti, 2009). 또한 Andrews 등(2000)의 연구에서는 외상사건 이후의 분노보다 수치심이 PTSD를 더 잘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외상경험 후에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감과 비난은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고, 외상사건이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수치심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수치심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는 수치심으로 인한 방어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

기도 한다. Lewis(1971)는 수치심이 자아 정체감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렬한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억압이나 부인, 회피, 투사 등의 방어를 한다고 하였다. 수치심이 내재화 되었을 때, 개인은 스스로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기(self)가 결점이 있고, 매력적이지 않고, 실수를 하지도 모르고, 공허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연, 2008).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느낌, 감정, 욕구를 타인의 것과 혼동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일관되게 지각하지 못하는 자기자각의 손상을 보인다(Wilson, Drozdek, & Turkovic, 2006). 이는 자아정체감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자기 내부의 과정, 동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은 자기(self)와 타인에 대한 분노감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분노를 억제하거나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는 등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난다(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결함 있고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저하된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자각 능력의 손상으로 타인의 욕구와 생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으

로 수치심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로 설명된다(Fischer & Tangney, 1995, Rivzi & Linehan, 2005 재인용). 이렇게 수치심이 일으키는 내부의 불편감은 방어작용을 일으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소통의 매개인 정서표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하는 회피행동을 동기화시키고, 모욕감과 노여움, 분노감을 수반하여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는 경향성을 낳아 대인관계의 훼손을 가져온다(남기숙, 2002; 이지연, 2008).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수치심이 대인관계 갈등,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과 이 밖의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왔다(이지연, 2008; Coffey et al., 1996; Lester, 1998;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정서조절, 정체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는 ‘자기역량’이라는 개념을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결 지어 다루고자 한다.

### 자기역량의 손상

자기역량(self-capacities)은 일관되고 통합된 자기감(sense of self)을 유지하는 개인의 내적 능력으로(Pearlman, 1998),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발달하며,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주의 자아발달이론(Constructivist self development theory, CSDT)은 자기역량을 세 가지 역량으로 설명한다. 첫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강한 정서를 경험하고, 견디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

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Pearlman(1998)에 의하면, 자기역량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경우, 개인은 홀로 있을 때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이 개입된 관계를 피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중독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들을 취하게 될 수 있다.

Briere와 Rickards(2007)는 자기역량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자기역량의 손상(impaired self-capacities)’라고 했다. McCann과 Pearlman(1990, Briere & Runtz, 2002 재인용)에 따르면, 자기역량의 손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손상을 포함한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아정체감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자기인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의 손상으로, 정체감 손상이라고 한다. 둘째, 해리와 같은 방어기제나 약물남용, 자해 등과 같은 극적인 행동으로 회피하지 않고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견디는 능력의 손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이라고 한다. 셋째, 부적절한 투사나 상대가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관계성의 손상이라고 한다.

자기역량이라는 분야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역량의 손상이 아동기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예, Briere & Rickards, 2007; Deiter, Nicholls & Pearlman, 2000; Pearlman, 1998). 자기조절, 자기개념, 대인관계 기능의 손상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로 인한 대표적인 발달적 손상으로 알려져 있고 (Bailey, Moran, & Pederson, 2007), 아동기 대인

간 외상이 성인기 자기역량의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정희진, 2008; Briere & Rickards, 2007). Briere와 Rickards(2007)는 외상유형과 외상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대인외상과 성인기에 경험한 외상 사건은 자기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인간 외상과 아동기 외상만이 자기역량의 손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자기역량 손상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정희진(2008)이 18세 이전에 가정 안에서 경험한 학대외상과 성인기 배우자폭력외상이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8세 이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상된 자기역량이 대인간 외상경험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earlman(1998)은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학대하는 가정 환경에서는 자기역량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했고, Deit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손상된 자기역량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을 구성하는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어린 시절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손상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기에 신체적 유기 및 방임을 경험한 성인은 대인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을 보였고(Drapeau & Perry, 2004), 아동기에 경험한 대인간 외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인관계문제에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관여, 과순응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나래, 2008; 이유경, 2006). 또한 Harter(1999)에 의하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외부적인 위협에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기자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신이 일관되게 어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고, 타인의 생각과 요구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학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의 감정, 행위, 내면 상태를 묘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와 생각에 초점을 두는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iere, 1989; Cicchetti et al., 1990, 안현의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자기역량은 아동청소년기에 걸쳐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양육을 통해 자기(self)의 기능이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자기역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기 대인간 외상이 어떤 경로로 자기역량의 손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의 손상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정체성 혼란, 대인관계 갈등, 정서조절 어려움의 관계를 입증한 선행연구결과(Merritt, 1997; 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Wilson et al., 2006)들을 바탕으로 수치심과 자기역량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바,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과 충청지역 소재 4개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503명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03부 중 무응답이나 외상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37부를 제외하고 466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피험자들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1.3세였고, 미혼이 98.2%, 기혼이 1.8%였다. 이 중 기혼으로 응답한 1.8%는 대학생이지만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가진 집단으로 여대생의 집단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혼으로 응답한 7부를 제외한 459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 측정도구

#### 아동기 학대 외상 질문지

아동기 대인간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998)가 제작한 아동기 학대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등 네 가지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만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4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적 학대 .76, 정서적 방임 .91, 신체적 학대 .75, 신체적 방임 .44로 나타났다.

####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Cook이 개발해서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가운데 제5판의 원문(Cook, 2001)을,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척도, 총 3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원척도에서는 단일 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Cook, 2001).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하여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질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와 포함시킨 것이다.

각 문항은 0에서 4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적절감 .90, 공허 .89, 자기처벌 .76, 실수불안 .81로 나타났다.

#### 자기역량의 변화 척도

Briere(2000)가 개발한 자기역량의 변화 척도 (Inventory of Altered Self-Capacities: IASC)를 정희

진(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3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로 나누어지고, Likert 5점 평정 척도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는 .96이었고, 하위 영역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관계성 .93, 정체성 .92, 정서조절 .89로 나타났다.

### 결 과

본 연구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상관관계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변인 간의 상관을분석한 결과, 대인간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위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간 외상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각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r=.47, p<.01$ ), 공허( $r=.44, p<.01$ ), 자기처벌( $r=.42, p<.01$ ), 실수불안( $r=.30,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간 외상경험의 하위척도들 간에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r=.51, p<.01$ ),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r=.49, p<.01$ )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방임을 중복해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자기역량의 손상의 각 하위요인인 관계성( $r=.67, p<.01$ ), 정체성( $r=.66, p<$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459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척도
대인간 외상	7.63	6.88	1.00	40.00	0-3
정서적 학대	3.02	2.94	0.00	14.00	0-3
신체적 학대	1.51	2.28	0.00	12.00	0-3
정서적 방임	3.10	3.50	0.00	15.00	0-3
신체적 방임	1.96	1.97	0.00	9.00	0-3
내면화된 수치심	22.29	15.02	0.00	89.00	0-4
부적절감	7.15	6.28	0.00	37.00	0-4
공허	4.64	4.46	0.00	20.00	0-4
자기처벌	4.10	3.37	0.00	20.00	0-4
실수불안	6.40	3.26	0.00	16.00	0-4
자기역량의 손상	132.41	33.59	66.00	252.00	1-5
관계성	55.63	15.14	28.00	114.00	1-5
정체성	41.38	11.76	20.00	80.00	1-5
정서조절	35.40	10.41	18.00	74.00	1-5

표 2. 주요 및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대인간 외상경험	1													
2. 정서적학대	.84**	1												
3. 신체적학대	.69**	.51**	1											
4. 정서적방임	.81**	.49**	.28**	1										
5. 신체적방임	.42**	.30**	.27**	.40**	1									
6. 내면화된수치심	.49**	.50**	.28**	.35**	.20**	1								
7. 부적절감	.47**	.47**	.23**	.38**	.20**	.91**	1							
8. 공허	.44**	.42**	.28**	.32**	.21**	.86**	.68**	1						
9. 자기처벌	.42**	.43**	.30**	.27**	.17**	.87**	.69**	.74**	1					
10. 실수불안	.30**	.35**	.14**	.21**	.08	.78**	.63**	.56**	.63**	1				
11. 자기역량의 손상	.40**	.41**	.34**	.23**	.21**	.73**	.59**	.68**	.69**	.58**	1			
12. 관계성	.38**	.42**	.29**	.21**	.22**	.67**	.54**	.63**	.64**	.53**	.94**	1		
13. 정체성	.32**	.32**	.25**	.21**	.18**	.66**	.55**	.56**	.60**	.58**	.88**	.73**	1	
14. 정서조절	.38**	.34**	.38**	.20**	.17**	.64**	.50**	.65**	.61**	.45**	.87**	.74**	.65**	1

\* $p < .05$ , \*\* $p < .01$ , \*\*\* $p < .001$

.01), 정서조절( $r=.64, p<.01$ )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각 하위요인들과도 높은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역량 손상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높은 상관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관계성은 나머지 두 역량의 손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관계성의 손상은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줄어든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1.2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계수가 1.86~1.9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은 유의미한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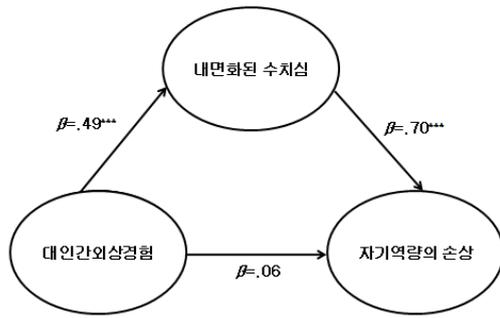
을 보였으므로,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의 손상 사이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변인으로 고려되기 위한 앞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네 번째 조건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종속변인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경험을 통제하고 난 후에 자기역량 손상에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간 외상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간 외상경험은 신뢰도 지수가 낮은 신체적 방임을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통해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 $\beta=.49, p<.001$ )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이 유의한 영향( $\beta=.40,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추가하여 대인간 외상경험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 $\beta=.70, p<.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1 단계에서 유의하였던 대인간 외상경험은 자기역량의 손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표 3.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모델의 검증단계	$R^2$ (Adj- $R^2$ )	$\Delta R^2$	B(SE)	$\beta$	F
1단계 검증 (독립→매개)					
매개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24(.23)	.24	.66(.06)	.49***	139.71***
2단계 검증 (독립→종속)					
종속변인: 자기역량의 손상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16(.16)	.16	.47(.05)	.40***	88.51***
3단계 검증 (독립,매개→종속)					
종속변인: 자기역량의 손상					
매개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59(.03)	.70***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53(.53)	.53	.08(.04)	.06	258.96***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

=.06, *n.s.*).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효과가 대인간 외상경험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 test를 하였는데, Z값이 9.53 ( $p < .001$ )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자기역량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간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자기역량의 손상에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자기역량 손상에

대한 대인간 외상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설명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여대생들이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경험한 대인간 외상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학대 외상 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의 학대보다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사례가 유형별로 방임이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그 뒤를 잇는다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보고와 국내에서 여대생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간 외상 연구(고나래, 2008; 이유경, 2006)들과 일치한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간 외상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간 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의 정도가 높아지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역량 손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간 외상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정 안에서 다른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중복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 겪는 심

리적 증상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는 Wind와 Silvern(1992)의 보고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결합되었을 때 우울, 자살사고, 불안, 해리 등의 수준이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Briere와 Runtz(1988)의 보고로 미루어보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셋째,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해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자기역량의 손상에 유의하던 대인간 외상경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먼저, 대인간 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관분석결과, 대인 외상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장 높은 상관( $r=.50, p<.01$ )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ross와 Keller(1992)는 정서적학대가 신체적학대보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귀인방식과 더 많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했고, 황은수와 성영혜(2006)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수치심 경향성을 보였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Bernstein(2002)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여성은 결함/수치심 도식(defectiveness/shame schema)을 발달시켜 자신을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만약 남들이 이런

결함을 알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결함/수치심 도식을 발달시켜서,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 비난, 실수불안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 증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역량이 손상되는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기여도를 알게 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값을 볼 때, 자기역량 손상에 대해 내면화된 수치심의  $\beta$  값이 0.70로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역량 손상의 하위변수인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이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상관이 모두 .60 이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역량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치심이 자기역량의 각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Merritt, 1997; 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Wilson et al., 2006)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기역량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서만 성인기 자기역량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대인외상이 성인의 자기역량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정희진, 2008; Briere & Rickards, 2007; Deiter et al., 2000; Pearlman, 1998)에서 더 나아가 완전매개변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

리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상된 자기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결여와 자기에 대한 불안정한 경험을 포함한 정체성 혼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번복하는 관계성 혼란, 그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적응적인 반응, 내면의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에 의존하는 정서조절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생들이 PTSD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아동 청소년기에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에 노출되었다면, 무분별한 성적 행동, 자해행동, 자살사고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자기귀인,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문제, 심리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냈다(고나래, 2008; 이유경, 2006; Ford, et al., 2006; Green, Krupnick, Stockton, Goodman, Corcoran, & Petty, 2005; Gross, & Keller, 1992). 따라서 여대생 내담자가 정체성 혼란,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고, 더 나아가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경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상담 장면에서 정체성 혼란, 관계에서의 갈등,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여대생 내담자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공허감,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 실수할 것에 대한 불안감 등 존재에 대한 수치심 정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면화

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외상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수치스러운 감정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여대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성인 남녀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연령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여대생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대인간 외상 경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및 방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성적 외상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 외상이 복합외상증후군을 일으키는 강력한 외상 사건인 만큼(Ford & Smith, 2008; McLean & Gallop, 2003), 성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후속 연구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넷째,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솔직하지 않게 응답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 문제. *심리과학*, 11(1), 35-52.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8). 내면화된 수치심과 방어유형, 정서표현의 관계. *상담학연구*, 9(2), 353-373.
- 정희진 (2008). 여성의 복합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변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9(2), 73-89.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277-285.
- Andrew,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 Bailey, H. N., Moran, G., & Pederson, D. R. (2007). Children maltreatment, complex trauma symptoms, and unresolved attachment in an at-risk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9(2), 139-16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nstein, D. P. (2002).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histories of emotional abuse or neglect. *Psychiatric Annals*, 32, 618-628.
- Bernstein, D. P., & Fink, L. (1998). The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Psychological Corporation, San Antonio, TX.
- Briere, J. (2000). Inventory of Altered Self-Capacities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riere, J., & Runtz, M. (2002). The inventory of altered self-capacities(IASC) A standardized measure of identity, affect regulation, and relationship disturbance. *Assessment*, 9(3), 230-239.
- Briere, J., & Rickards, S. (2007). Self-awareness, affect regulation, and relatedness differential sequels of childhood versus adult victimization experienc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6), 497-503.
- Chan, M. A., Hess, G. C., Whelton, W. J., & Yonge, O. J. (2005). A comparison between female psychiatric outpatients with BPD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Traumatology*, 11(1), 23-40.
- Clae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9(4), 277-284.
- Cloitre, M., Miranda, R., Stovall-McClough, C., & Han, H. (2005). Beyond PTSD: Emotion 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predictors of functional impairment in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Behavior Therapy*, 36, 119-124.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T. (1996). Mediators of the long-term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Perceived stigma, betrayal, powerlessness, and self-blame. *Child Abuse & Neglect*, 20(5), 447-455.
- Cole, P., & Putnam, F. W. (1992). Effect of incest on self and social functioning: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174-184.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Deiter, P. J., Nicholls, S. S., & Pearlman, L. A. (2000). Self-injury and self capacities: Assisting an individual in cri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9), 1173-1191.
- Drapeau, M., & Perry, J. C. (2004). Childhood trauma and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a study using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CCRT). *Child Abuse & Neglect*, 28, 1049-1066.
- Finzi, R., Har-Even, D., & Weizman, A. (2003). Comparison of ego defenses amo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omprehensive Psychiatry*, 44(5), 388-395.
- Ford, J. D., & Smith, S. F. (2008).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s receiving public sector outpatient substance abuse disorder treatment.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6(2), 193-203.
- Ford, J. D., Stockton, P., Kaltman, S., & Green, B. L. (2006).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type and severity of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in a sample of healthy you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1), 1399-1416.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reen, B. L., Krupnick, J. L., Stockton, P., Goodman, L., Corcoran, C., & Petty, R. (2005). Effects of adolescent trauma exposure on risky behavior in college women. *Psychiatry*, 68(4), 363-378.
- Gross, A. B., & Keller, H. R. (1992).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Aggressive Behavior*, 18, 171-185.
- Harper, F. W. K., & Arias, I. (2004). The role of shame in predicting adult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victims of child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6), 367-375.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Kessler, B. L., Bieschke, K. J. (1999). A retrospective analysis of shame, dissociation, and adult victimization in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35-341.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1048-1060.
- Kim, J., Talbot, N. L., & Cicchetti, D. (2009). Childhood abuse and curren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shame. *Child Abuse and Neglect*, 33, 362-371.
- Lester, D. (1998). The association of shame and guilt with suicid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535-536.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cLean, L. M., & Gallop, R. (2003). Implications of childhood sexual abuse for adul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369-371.
- Merritt, P. (1997). Guilt and shame in recovering addic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5, 46-49.
- Pearlman, L. A. (1998). Trauma and the self: A theoretical and clinical perspective. *Journal of Emotional Abuse*, 1(1), 7-25.
- Rizvi, S. L., & Linehan, M. M. (2005). The treatment of maladaptive shame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ilot study of "Opposite Action".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2, 437-447.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 (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5-324.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 into anger? The relationship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69-675.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ylor, S., Asmundson, G. J. G.,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Anxiety Disorders*, 20, 459-472.
- Tjaden, P., & Thoennes, N. (1998).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Retrieved May 21, 2002, from <http://www.ncjrs.org/txtfiles/172837.txt>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1, 1143-1153.
- Wilson, J. P., Drož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2), 122-141.
- Wind, T. W., & Silvern, L. (1992). Type and Extent of Child Abuse as Predictors of Adul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7(4), 261-28
- 1 차원고접수 : 2011. 7. 24.  
심사통과접수 : 2011. 9. 14.  
최종원고접수 : 2011. 9. 22.

## **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Eun-young Choi**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history and impaired self capacities among Korean female undergradu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hood complex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Childhood complex trauma was positively related to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and internalized shame was positively related to impaired self-capacities. Second, internalized sham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and impaired self-capacities. The present finding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traumas, in the form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emotional neglect, physical abuse and physical neglect were associated with adult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Finally,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mpaired self-capacities may be reduced through psychotherapy that successfully address issues of internalized shame.

*Key words* : wom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shame, self-capacities